

축제의 경관문화: 정원박람회와 환경예술제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순천만’ 현상?

우리의 공간적 삶은 ‘머무름’과 ‘떠남’으로 양분되는 것 같다. 전자는 거주, 고향, 일터 등으로 연상되는 일상적 정착의 공간, 후자는 이동, 출장, 여가 등으로 연상되는 탈일상적 여정의 공간으로 귀착된다. 조경은 일상적 거주의 공간을 안정되고 건강하게 가꾸고 일상을 떠나서 방문하는 여행의 공간을 이색적이고 풍요롭게 연출하여 왔다. 한국의 미래 공간수요를 예측할 때, 인구통계학적으로 전자의 주거공간의 수요는 안정 내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후자의 산업적 수요인 관광공간의 수요는 인구 전반의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06, 문화관광부). 조경의 미래수요는 이들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의 발굴과 조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경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올해 8월 17일 개장 120일을 맞아 그간 262만 3,376명이 입장해 목표 관람객 400만 명의 65.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뉴스1코리아 인터넷 보도). 아마도

이러한 기록은 한국에서 행해진 역대 박람회 중 최고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 보통, 정원박람회가 전체 마스터플랜에서 세부 정원설계,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경전문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할 때, 이러한 예상을 초월하는 수요폭증 현상의 원인과 파급효과, 대응방안의 분석은 최근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경의 미래에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대 이상 관람객 유치 성공의 배경에는 ‘순천만’이라는 대한민국 생태보고의 입지적 탁월성과 박람회 준비 및 진행의 치밀함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외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인구학적 구조도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인구학적 추계에 따르면 약 10년 뒤부터 한국사회의 고령화에는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 벌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63년생의 한국전쟁 전후 인구폭증세대로 현재 우리나라 평균 은퇴시기인 55세의 전후 세대이다. 이

미 1997년 IMF 사태 이후 서울근교의 온 산들이 등산객으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한 바도 있었지만, 최근에도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고 단기 국내관광 상품은 없어서 못 파는 세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은퇴세대로 인한 국민여가행태의 전환이 순천만정원박람회의 대박 관람객 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를 넘은 고령시대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4%인 712만 명에 해당한다고 추산한다. 앞으로 십 년 남짓한 미래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들의 은퇴 후 세수축소와 복지비용 증가, 노동생산성 위축, 주택시장 악화 등 어두운 면들이 많이 예견되고 있지만 여가 시간이 가장 많은 이들 세대가 바라고 즐겨야 할 환경복지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과제이다.

이들의 평균자산은 약 3억 8천으로 은퇴 이후 경제규모로는 대체로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빠듯하거나(46.2%), 약간 여유 있는 수준(29.7%)이다. 은퇴 후 희망 후생활은 취미생활(42.3%), 소득 창출(18.6%), 자원봉사(16.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대 베이비부머 패널연구팀, 2010 조사). 결과적으로 이들 중 40~50%는 어느 정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여가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유사 이래 가장 큰 동질적 고객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광학계에서는 이들의 등장을 '뉴 시니어'라고 부르며 이들이 핵심관광 소비계층으로 등장하는 것을 지배적 트렌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심원섭, 2010). 이들은 일상적 여가 시간에는 집 근처의 공원이나 근교의 산에서 산책과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런 일상적 여가 공간들도 이미 포화상태로 추가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더욱 본격적인 고품격 관광 여가의 장소를 희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또한 국가·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밝힌 '미래관광의 7대 트렌드 변화'를 보면, 관광자원의 새로운 주제로서 '문화(culture)'와 '체험학습(edutainment)', '마음학습(soul)'이 1, 2, 3위로 나타나고 있다(주영민 외, 2011). 즉, 이들 떠오르는 새로운 관광고객 집단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지속적인 지적 자극을 받고 결국은 마음의 치유를 통해 삶의 용기를 복돋울 수 있는 새로운 관광기반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의 트렌드가 반영된 보다 본격적 여가활동 공간의 필요성을 앞서 '순천만'의 성공사례를 통해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만의 경우는 그들이 바라는 풍요로운 자연과 생태경관, 다양하고 창조적인 세계정원문화를 찾아볼 수 있음은 물론, 실용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시대적 관광트렌드가 반영된 적절한 관광이벤트로서 호응을 받은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나는 이러한 신 관광소비계층으로서 '뉴 시니어'의 등장과 그들과 더불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미래형 관광명소의 창조가 조경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본다. 이 글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최근 관광트렌드와 부합되는 관광자원창출의 논의 전개를 위해 축제형 관광공간을 대조적인 두 성격의 유형으로 나누어 사례를 비교 고찰하고 앞으로 우리 국토환경에서 발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림 1.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찰스젠크스, 순천호수정원

2. 축제의 두 유형: 곳과 제의

관광이라고 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은 비일상성의 추구이다. 이러한 비일상성이라는 것은 일상의 생활과 대비되는 이색적 환경과 상황과의 접촉을 추구하는 것이며 활동적 이벤트로 보자면 일탈을 목표로 하는 축제와 관련이 있다. 즉, 사람들은 관광활동을 통해 일상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축제적 체험을 원한다. 일상의 실용적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별세계인 축제적 경관과 행위를 찾아가는 것이 관광의 본질이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축제를 우리말로 하자면 잔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공동의 축제에는 두 가지의 형식이 있었다. 샤머니즘에 기반을 둔 토속적인 대동굿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유교적 교리에 기반을 둔 엄숙한 형식의 제의가 있다. 전자는 화려하고 떠들썩하며 구경거리가 많아 흥분을 유발하는 카오스적 엑스터시를 지향한다면, 후자는 더욱 내성적, 성찰적이며 자제와 긴장을 통한 구도적 승화를 지향한다. 이 두 가지 잔치는 매우 대비적 성격이지만 모두 우리 정신의 양면성에 대응함으로써 두 유형 각각이 정신의 치유와 고양에 효과적이며 상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광행위가 축제적 상황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앞서 축제의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을 적용하여 동적 유형과 정적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나는 관광이벤트에 있어서 양자의 대표적 예로 '정원박람회'와 '환경예술제'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조경이나 경관 미학의 산물로 창출된 것이다. 이들 각각의 성격은 화려함과 고요함, 감각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떠들썩한 즐거움과 쓸쓸한 성찰, 인접도시와의 공간적 연장과 격리 등으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환경을 주제로 한 축제로 볼 수 있지만 공통점과 함께 대비점을 갖고 있어 앞서 곳과 제의의 대비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3. 정원박람회: 〈2013 함부르크 국제정원박람회〉의 예

정원박람회는 산업혁명 이후 런던 만국박람회(1861)로부터 시작된 박람회 열풍에 따라 런던 켄싱턴에서 열린 정원박람회(Great Spring Show, 1862)와 유명한 파리국제장식미술박람회(1925)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본다. 이후 1990년대로부터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정원박람회는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잠재력이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도시외곽지를 대상으로 개최함으로써 동시에 지역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였다. 1932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쇼몽 국제정원박람회, 영국의 첼시플라워쇼, 독일에서 1993년부터 시작된 슈투트가르트 정원박람회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슈투트가르트 박람회는 지속적 박람회를 통해 8km에 달하는 9개의 공원을 연결하여 도시의 녹지체계를 완성하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바람길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까이 일본에서 1990년 열린 오사가 국제꽃박람회는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되어 후적지가 원형보전 관리되어 이후 일본 최대의 도시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적 인증기구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 과거 50년간 국제정원박람회 인증 건수가 1960년대 ~ 1990년대까지는 매 십 년 단위로 3~4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2009년까지는 12건, 2010년~2017년(예정포함)까지는 14건에 이르고 있어 2000년 이후 비약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탈근대적인 문화감성의 대두와 함께 국제정원박람회가 갖는 관광산업적, 환경보전적, 지역재생적 효과가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원박람회가 붐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격

년마다 열리는 국제원림박람회가 2013년에 <제9회 북경 국제원림박람회(the 9th China-Beijing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2013.5.18~11.30)>의 이름으로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료녕성 진초우시(金州市)에서도 세계조경연맹(IFLA)과 공동으로 <진초우 세계경관예술박람회(Jinzhou World Landscape Art Exposition, 2013.5.10~10.30)>를 열고 있는 중이다. 그보다 약 한 달 먼저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50년 전통의 10년 주기 행사인 <함부르크 국제정원박람회(International garden Show Hamburg 2013.4.26~10.13)>가 열리고 있다. 순천만박람회(111만 m²)와 비교하여 함부르크박람회는 거의 같은 면적이고, 북경박람회는 약 2.4배, 진초우박람회는 약 3배에 달하는 공간규모이다. 순천만박람회는 '생태벨트(Eco Belt)'라는 주제를 택해 하늘이 준 천혜의 정원 순천만의 자연생태를 도시개발로부터 보전한다는 거시적 역할을 선언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국제정원박람회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나 이것이 박람회 내부 각 정원의 개념과 표현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아쉬운 인상이다. 북경은 특별한 주제를 내걸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이번에 세계 초유의 영구시설인 국립 '중국원림박물관(총면적 50,000m²)'을 박람회장 안에 조성해놓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진초우는 '세계는 정원이다'라는 주제로 세계의 조경가들이 설계한 20개의 대형 현대정원들을 조성해 놓았는데, 순천과 북경의 전시에서 세계 각국의 전형적 전통정원들 위주로 전시했던 것에 비해 현대작가들의 예술성을 감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함부르크는 '80정원 속의 세계일주(Around the World in 80 Gardens)'를 대주제로 내걸었고 이를 '항구의 세계' 등 7개 세계의 소주제들을 통해 체계적인 공간구성을 전개해 가고 있다. 이는 줄베르느 원작의 '80일간의 세계일주'

라는 소설을 패러디한 것으로 함부르크라는 항구 도시의 이미지와 박람회의 주제를 결합시켜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효과적 발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들 박람회장의 대상지 대부분은 대도시 교외지대 미개발지를 택해 지역재생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특히 강의 하구(순천만, 진초우)나 강 속의 섬(함부르크) 등 생태적으로도 다양하면서도 배후도시와는 어느 정도 격절된 곳을 택해 세속과 어느 정도 절연된 이상향의 기본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여러 지면을 통해 소개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함부르크 국제정원박람회를 사례로 그 입지와 기획의 차별성을 살펴보고 한다. 1963년부터 약 10년 주기로 개최되어 온 <함부르크 2013 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명칭은 'IGS (International Gardenshow) Hamburg 2013'이다. 대주제로 '80 정원으로 세계일주(Around the World in 80 Gardens)'를 내걸고 4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리고 있다. 소주제이자 구역별 주제로는 '항구의 세계(5개 정원)', '종교의 세계(5개 정원)', '물의 세계(18개 정원)', '문화다양성의 세계(10개 정원)', '대륙의 세계(16개 정원)', '자연의 세계(5개 정원)', '활동의 세계(11개 정원)' 등 7개 구역별로 설정하여 80개의 정원을 배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여 개별정원의 설계는 독일 전역(함부르크와 베를린, 본이 중심)의 설계사무실들과 작가들, 소수의 외국 작가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공과 관리는 '정원·조경협회(Ihre Experten für Garten & Landschaft)'가 주도하고 있다. 기쁜 점은 한국 서울시립대 대학원 신준호 학생의 화성의 정원을 주제로 한 '우주정원(The Interplanetary Garden)'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람회장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강 속의 섬인 Hamburg-Wilhelmsburg에 위치해 있

다. 일종의 강과 바다 사이의 저습지인 이곳은 지하수위가 높은 지질구조상 개발이 지연되어 왔었던 곳이고 본격적 도시개발 대신 대규모의 ‘분구원(Klein Garten)’ 단지가 대상지 전체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해오고 있던 곳이다. 따라서 운하나 호수 등 수경요소를 조성하기는 쉬웠고, 분구원의 집단정원들은 일종의 박람회장의 녹색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다. 함부르크는 초기의 정원박람회로부터 계속해서 박람회장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개최하여 전략적으로 후적지를 도시공원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이번 박람회도 출품되었던 정원을 최대한 보존하여 공원의 구성요소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7개 소주제와 소주제별 구역의 구성은 함부르크 정원박람회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중에서 핵심 소주제는 선도주제로서의 ‘항구의 세계’가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물의 세계’와 ‘대륙의 세계’가 각각 가장 많은 18개와 16개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람회의 진입부에 위치한 ‘항구의 세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쾰른의 저명한 소설을 원전으로 한 것으로 주인공이 80일간 세계를 일주할 때 방문한 런던에서 리버풀까지의 주요 항구들을 개별 정원으로 꾸며 그 지역성을 표현해 놓았다. 즉, 인도 콜카타는 ‘차’를, 상하이는 ‘면화’와 ‘태호석’을, 리버풀은 ‘비틀스’를 표현하는 등등이다. 전체 박람회 정원들의 일관된 특징이기도 했지만 각 정원은 식물재료 외에 일상적 오브제를 활용해 설치미술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조경의 기법의 확장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물의 세계’는 함부르크와 현 대상지의 환경적 특징을 살려 수경의 다양한 조경적 이용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환경자원으로서 수자원 고갈을 경고하는 등의 교육적 측면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의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박람회가 단순히 구경거리에 그치지 않고 공공적, 지적 담론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대륙의 세계’는 여느 국제 정원박람회에서도 중심주제로 다루어지는 세계 각국(여기서는 문화권별)의 지역성과 문화를 경관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정원은 미국의 캔 스미스가 설계한 ‘아메리칸드림 정원’이라는 팝아트적 정원으로 카지노를 연상시키는 평면 구성의 중심에 ‘Dream-opoly(꿈의 독점?)’을 키워드로 하고 그 주변부를 돈, 기회, 교육, 골프(그린), 풍요(캐첩병) 등을 글자와 그림, 오브제로 배치하여 미국문화의 세속적 욕망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문화다양성의 세계’에서는 주로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이나 특히 다문화 가족들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 정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활동의 세계’는 최근 새로운 조경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포츠와 놀이공간의 혁신적 설계시도를 볼 수 있으면서 가족과 동반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기호를 충족시켜 주기도 하였다(igs2013, 2013, In 80 Gärten um die Welt, Hamburg).

전반적 표현의 경향은 여러 나라에서 정원박람회의 초기에 시도하는 각종 전통정원의 나열적 전시보다도 세계 여러 지역의 현시점의 문화와 사회적 문제들을 다양한 재료와 오브제의 추상적 표현을 통해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원박람회를 대하는 그들의 축적된 역사적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향후 한국의 경우에 여러 면에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2. 함부르크국제정원박람회, 항구의 세계 구역

4. 환경예술제: 〈세토우치 국제환경예술제〉의 예

환경과 예술을 결합하여 메시지가 있는 경관으로 창출하는 환경예술은 멀리는 20세기 말의 대지예술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충실한 축제의 형태로 정립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인다. 유명한 것으로는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스코틀랜드환경예술제(EAFS)>가 있고 경관환경과 건축, 현대미술이 결합된 본격적인 환경예술제인 일본의 <세토우치국제예술제(Setouchi Triennale)>가 있다. 국내에도 환경예술제의 이름을 붙인 몇몇 예술제(민통선환경예술제, 시화환경예술제, 부산국제환경예술제 등)가 있으나 대개 소규모, 저예산의 지역행사로 그치고 있는 편이어서 본격적인 수준 아래이며 관광자원으로서의 파급력도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지역입지적 공통점은 해안(스코틀랜드, 부산, 시화)이나 바다와 섬(세토우치), 생태역사적 민감지역(민통선) 등 경관적으로 잠재력을 갖고 있었으나 방치되어 있거나 개발에 의해 훼손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스코틀랜드 국제환경예술제>가 펼쳐지는 대상지는 ‘덤프리와 갤로웨이(Dumfry & Galloway)’라는 해변가 지역으로 고대의 거석문명과 헨리 무어의 대지를 배경으로 한 조각작품들, 그리고 대지조각가 앤디 골스워시의 작품들, 찰스 쟁크스의 ‘우주적 명상’의 작품들이 산재한 지역이기도 하여 환경예술제 대상지로서는 경관기반이나 역사문화적으로 최적지이고 출품작의 수준도 높은 편으로 보이기는 하나 총 4일의 매우 단기간 행사로서 본격적 국제행사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관광유발 효과도 매우 의심되는 사례라고 보인다.

여기서는 2010년에 일본 시코쿠의 세토 내해(內海) 바다에 위치한 나오시마(直島) 섬을 중심으

로 시작하여 2013년에 3년 주기 환경예술제로 공식화된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중심으로 광역의 바다와 섬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 환경예술제의 개요와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토내해는 일본열도가 감싸 안는 지중해와도 같은 바다로 바닷물결이 잔잔하고 수많은 섬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일본열도의 자궁(子宮)이라고도 불린다. 세토내해의 아름다움은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를 거쳐 전 세계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근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의 섬들은 공해물질을 내뿜는 제련소들이 곳곳에 지어지고 산업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수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황폐한 낙도들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일본의 한 양심적 기업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새로운 현대예술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정식명칭 <세토내해국제예술제2013(Setouchi Triennale 2013)>이 금년 봄, 여름, 가을의 3계절 동안 세토내해 바다의 ‘나오시마’를 비롯한 7개의 섬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사실 ‘세토우치예술제’는 원래 2010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4개월간 국내외인 93만 8천 명의 방문을 기록하면서, 그 예상외의 성황으로 3년 주기의 예술제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기업인은 후쿠타케 소이치로(베네세홀딩스 이사장/후쿠타케재단 이사장)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색다른 문화사업 기획을 통해 근 30년에 걸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 지역을 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사업의 중심지는 ‘나오시마’라는 거점적 위치의 섬이고 총괄 건축가이자 아트디렉터는 안도타다오라는 인근 오사카 출신의 국제적 건축가이다.

안도는 후쿠타케의 요청으로 나오시마에 ‘베네세하우스미술관 및 호텔(1992)’, ‘지추미술관(地中美術館, 2004)’, ‘이우환미술관(2010)’의 세 미술관을 지으면서 이 섬과 인근 해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인근의 이누지마(犬島)

에 ‘세이렌쇼(제련소)미술관’을 짓고 역시 이웃 섬인 테시마(豊島)에도 ‘테시마 미술관(2010)’을 오픈하고 동시에 세토내해의 섬 총 일곱 군데에 미술작품들을 설치하면서 첫 번째 ‘세토우치예술제 2010’을 개최하게 되었다. 안도가 총괄디렉터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는 하겠지만 건축물들이 미술축제의 뼈대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는 나오시마 섬을 중심으로 예술제의 여러 성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건축물들은 지금 언급한 여러 미술관들을 한 축으로 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그 외에 여러 섬마을들의 기존 폐가나 공가를 활용해서 만든 일종의 설치미술들이 또 한 축을 형성한다. 이 새로운 양식의 환경미술을 주최 측은 새롭게 ‘이프로젝트(家 project)’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특정화시켰다. 이 ‘이프로젝트’에 의해 노인 위주의 주민사회는 전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 작품을 보려고 마을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에 흥미를 느끼면서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전에 없는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이프로젝트는 예술적으로 새로운 시도이자 예술과 삶을 일체로 보여주는 효과, 그리고 마을의 활성화효과 등 매우 혁신적 효과를 갖는 유형으로 인정받을 것 같다.

이 밖에 해안선을 비롯한 섬의 중요 경관포인트나 공원에 야외 조형물들을 설치한 것이 또 다른 축을 형성한다. 그래서 예술제의 전체 내용은 안도가 신축하였거나 재생한 건축물들, 그리고 그 안의 예술작품들, 마을 내의 기존주택을 개조 또는 신축하여 예술공간화한 작품들, 그리고 섬 곳곳에 산재한 예술품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섬경관과 세토내해의 경관들, 그리고 마을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이들이 하나의 경관상(景觀相)으로 혼용일체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 전체의 기획은 근대화 산업유산인 제련소를 보존하고 예술을 통해 재생하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과 이에 걸맞은 현대미술, 그

리고 환경시스템이 일체를 이루는 지역재활 또는 재생이라는 전제 아래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총괄 디렉터인 안도는 “1988년 첫 방문 시 나오시마는 거의 민둥산이었다. … 금속 제련회사가 배출한 유독가스로 인해 섬의 수목 대부분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연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주변 섬경관을 배경으로 강하게 눈에 띄는 건축물보다는 “단지 ‘공간’만을 감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건축’을 의도”하여 나오시마의 여러 미술관들을 설계하게 되었다고 한다(후쿠타케 소이치로, 안도 타다오 외, 2013:71~75). 실제, 베네세하우스미술관, 지추미술관과 이우환 미술관은 지상에 노출되는 구조물은 입구 외에는 최소화하고 지중화하여 외부에서는 건축물이 있는지 의식조차 안 된다. 그는 이 건물들 속에서 외부의 빛을 도입하면서 작가들과 협동작업으로 환경예술작품들을 만들어 내었다. 제임스 터렐과 같이 한 <오픈스카이>는 미로 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터진 중정을 만나게 된다는 건물과 작품의 콘셉트가 거의 하나라고 보이는 이우환 미술관의 경우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우환이나 제임스터렐 등과 같은 주요 작가들은 주로 사업주인 후쿠타케가 초청한 작가들이기는 하였지만 주요 작가 대부분이 미니멀리스트들이어서 안도의 건축물들과는 호흡이 너무 맞아 마치 영화 속 주연과 조연의 관계와도 같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섬 전체의 환경은 매우 고요하여 축제라기보다는 종교적 공간과도 같이 보인다. 이 밖에도 섬의 곳곳에 설치된 많지 않은 현장 작품들은 대다수가 쿠사마 야요이의 팝아트적 작품들이나 니키드 생팔처럼 누보레알리즘 계열의 화려한 작품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놓이는 장소에 의해 주변 공간과 초현실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장난스럽기보다는 오히려 고요한 절대적 풍경을 이룬다.

“삶의 적요(寂寥)를 찾으려는 여행자라면 나오시마를 권하고 싶다. 대개의 여행지가 ‘들뜬 곳’이

지만 이곳은 들뜬 사람들을 가라앉혀 주는 곳이다 (후쿠타케 소이치로, 안도 타다오 외, 앞 책:45).”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토우치국제환경예술제>는 세속적 축제의 들뜬 화려함보다는 섬이라는 외로운 환경과 성찰적 현대미술작품들을 통해 자연경관과 건축, 예술문화의 관계를 고요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침묵의 축제이다.



그림 3.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쿠사마야요이, 노란호박



그림 4.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제임스터렐, 오픈스카이



그림 5. 세토우치국제예술제, 오오타케신로, 이에프로젝트, 하이샤

5. 우리의 전망과 과제

순천만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2002년 안면도와 2009년 꽃지에서 순천만과 동급의 국제정원박람회를 주관하였고, 최근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국내정원박람회도 경험하여 다른 나라 못지않은 역량을 축적하여 왔다. 이제는 우리의 경관문화, 조경문화를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문화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단계이다. 차별성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 연계관광을 유도하고, 주제의 선정과 전개도 시대와 지역정신을 반영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구태의연한 각국 전통정원 전시보다는 현시점에서 각국 조경문화의 최전선이 반영된 현대정원 전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만 세계적 정원조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 방문객들을 끌어오면서 조경한국의 선도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떠들썩한 잔치도 중요하지만, 이와 대조적 성격의 차별하면서도 품격 있는 본격 환경예술축제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 밝고 흥겨운 정원박람회와 깊고 성찰적인 환경예술제는 인간 영혼의 양면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선택이 아닌 병행을 통해 국민 전체의 다양한 감성적 요구에 균형 잡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예와 같은 건축과 현대미술의 만남도 예술제의 좋은 형식이지만, 경관과 현대조경예술 그리고 현대미술의 만남을 통한 예술제도 가능할 것이다. 그간의 비약적인 조경발전을 통해 우리 조경가들 중에는 이미 예술가적 수준에 육박한 개인이나 회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미 정영선과 서안동료들이 선유도공원에서 보여준 예술적 역량을 비롯하여, 최신헌의 대지예술적 시도(북서울꿈의숲)와 디지털예술적 시도(서서울호수공원)의 성공, 신에그룹 중 김연금의 한평공원을 통한 사회조경적 실험들과 김아연의 본

격 환경미술적 실험들(사북 고한 아트인빌리지 프로젝트) 등을 볼 때 이미 한국현대조경은 현대미술에 필적할 수 있는 사고와 표현에 이르러있다고 판단되므로 외적 여건만 주어진다면 주체적인 사업추진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들을 주체로 하여 경관과 지역사회, 조경이 결합된 예술적 실험을 통하여 추진되는 ‘환경조경예술축제’는 관광이벤트로서도 승산 있을 뿐 아니라 조경 미래수요를 이끌어 낼 쇼케이스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말이 나온 김에 미래의 양대 환경축제를 가정한 후보지를 논의해보고 싶다. 이와 같은 대형 환경축제사업들의 성공에 있어서는 순천만의 예와 같이 입지가 절반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내륙지역의 수려한 산과 계곡 못지않게 해안 지역의 다양한 해안선, 특히 다도해와 한려수도로 대변되는 아름다운 군도(群島)의 국토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관광자원에 활용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먼저 우리는 이들 해안선과 섬의 자연경관기반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곳으로는 통영과 거제도, 외도 일원이다. 이곳은 국제정원박람회의 대상지로 매우 탁월한 경관적, 문화적 조건을 갖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관, 통영의 예술적 분위기와 외도의 해상정원, 거제도의 전쟁유산이 독자적인 테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임진강 하구~평화누리~DMZ까지의 지역이다. 이 대상지는 현 정부의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또는 그를 이끄는 도입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여기에 환경부, 문화부, 국토부, 통일부의 공동사업으로 ‘임진강 국제환경조경예술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한 조경예술과 현대미술의 공동작업을 통한 국제예술제는 어떨까? 이미 여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2011년 8월 15

일, 세계적 지휘자이자 평화운동가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스트웨스트디반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평화콘서트를 개최한 바도 있었다. 해방이자 분단의 기념일에 남북화합을 촉구하는 평화콘서트를 군사분계선 최전방에서 공연한 것은 그 자체로 예술을 통한 국제평화운동이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조경예술이 그간 개발환경의 치유, 관광자원 조성의 산업적 차원을 넘어서서 DMZ의 경관 예술적 메시지를 통해 인류사회의 분쟁을 치유하고, 자연과 땅의 회복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평화의 사상을 이끄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한국조경의 발전사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조경의 블루오션을 찾는 경영자적 인식을 넘어서서 동시대 세계시민들에게 조경예술의 사회문화적 위상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6. 사북 고한 아트인빌리지, 김아연, 장화물광장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2006), 국내 고령관광 수요예측 및 트렌드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심원섭(2010),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주영민 외(2011), 한국 관광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 삼성경제연구원 CEO Information 821호.
- 후쿠타케소이치로, 안도타다오 외(2013), 『예술의 섬 나오시마』, 서울: 마로니에북스.
- In 80 Gärten um die Welt, Hamburg, igs2013.